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 토론회

환영만찬 및 토론회

주제 :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 문화와 여성 -

일시 : 1991년 11월 25일 (월) 오후 6:00

11월 27일 (수) 오후 2:00

장소 : 라마다 올림피아 호텔 임페리얼룸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서울 토론회  
환영만찬 및 토론회 일정표

주제 :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 문 화 와 여 성 -



환영만찬 토론회

보관

일 시 : 1991년 11월 25일(월) 오후 6:00  
- 11월 27일(수) 오후 2:00  
장 소 : 라마다 올림피아 호텔 임페리얼룸

첫째날 11월 25일(월)

## 개회식 및 환영만찬

17:00	참가자 등록
18:00	<p><b>제1부 개회식</b>(사회:윤정옥 공동대표)</p> <p>개회선언 윤정옥 공동대표          경과보고 이효재 공동대표          환영사 이우정 공동대표          참가대표소개(일본측, 북측) 이우정 공동대표          영접위원 소개 윤정옥 공동대표          꽃다발 증정 영접위원 중          축가 "우리는 하나"—윤인숙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평양범민족통일음악회 참가)          일정안내 이미경 집행위원장</p>
18:30 -21:00	<p><b>제2부 환영만찬</b> (사회:오숙희 선생)</p> <p>만찬 중창 국악연주 실내악 연주—단국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피아노 트리오          "청산에 살으리라", "울산아가씨"—서연 중창단          "가야금 산조"—양승희(이화여대 국악과 강사, 가야금산조 준인간문화재)          "남도민요"—오정숙(무형문화재 제 5호, 판소리 춘향가 보유자)          교수:김청만(무형문화재 제 5호)</p> <p>환영의 말씀 공덕귀 영접위원          답사 북측, 일본측          독창 "너희 나라를 위해", "나팔꽃 아이"          —안혜경(한국여성단체연합 문화위원, 작곡가겸 가수)          다같이 노래를 인도—윤인숙 교수          폐회</p>

둘째날 11월 26일(화)

## 토론회

08:30	참가자 등록
09:30	<b>토론회 개회사</b> 이효재 공동대표
09:40 -12:00	<p><b>토론회 I</b>          사회:이현숙(여성의 전화 지도위원)          사회자 인사, 발제자, 토론자 소개</p> <p><b>주제발표</b>          주제 I: "가부장제문화와 여성"          발표자: 조형(이대 사회학과 교수)</p> <p><b>토론</b>          토론자: 북측 김대숙          일본측—와다나베 미네(일본YWCA이사, NCC이사)</p>
	<b>질의응답</b>
12:00	점심식사
14:00 -16:30	<p><b>토론회 II</b>          사회:한명숙(한국여성민우회 회장)</p> <p>사회자 인사, 발제자, 토론자 소개</p> <p><b>주제발표</b>          주제 II: "통일과 여성"          발표자: 북측 서명순</p> <p><b>토론</b>          토론자: 일본측—아마구찌 미야코(일본부인회의 중앙본부 부의장)          히로세 레이코(전 요코하마시 의회 의원)          남측—이정숙(숙명여대 정치학과 교수)</p>
	<b>질의응답</b>
16:30	"평화 통일 댕기" 묶기



니다. 따지고 보면 이리저리 얼키고 설킨 혈연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친척들입니다. 그런데 외세와 정 치지도자들의 피속한 처리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제1적성공으로 규제하고 6.25라는 끔찍한 비극을 겪었습니다. 이제 는 더이상 이런 민족적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되겠다는 굳은 신념이 우리 를 이 자리에 모이게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서로 증오하고 적 대관계를 상승시켜가서는 안되겠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가운데 평 화롭게 함께 발전하고 번영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생 명을 잉태하고 보호하며 양육하는 여성들이 더 열성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 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모였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속담이 있 습니다. 우리 정말 짙은 애정을 가지고 우리 문제를 풀어보는 장을 마련합 시다. 이런 의미에서 북측에서 오신 자매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모임이 많은 인력과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겉치레의 모임이 아니고 정말 진 지한 논의를 거쳐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된 한반도의 평화를 통해 진정한 아 시아의 평화를 이룩하는 계기가 될 수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다시 한 번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 발 제 : 가부장제 문화와 여성

조 형 (이화이데)

### 1. 가부장제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가부장제란 원래 가족의 우두머리인 가장(家長)이 다른 가족성원들 위에 군림하고 통솔하는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부장제 하에 서는 가족안은 물론 가족 밖의 사회에서 남성들 사이에는 위계적 권계가, 그리 고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남성의 지배와 여성의 종속이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인식되고 또한 행동의 기준이 된다.

남성 가장(家長)의 사적(私的)이고 절대적인 지배권을 인정한 고전적 가부장제 원리는 봉건적 경제체제와 유교이념에 의해 뒷받침되면서 얼마전까지 만 해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모두의 삶을 강력하게 지배해왔다.

정치, 경제적으로 봉건시대를 훨씬 초월한 오늘 날에는 이러한 고전적 가부장제 원리가 법률과 같은 공식적인 제도에서는 그 모습을 감추었으나, 문화로서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사회 각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삶을 다르게 규정 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의 많은 여성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다. 가부장제 문화는 바로 이러한 남성에 의한 여성지배, 남성에 대한 여성종속을 지속시키는 가치관과 삶의 양식을 말한다.

이 주제발표의 목적은 첫째로, 현대사회의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여성 의 사회적 삶은 어떠한 "여성문제"를 내포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둘째로, 평화를 추구하는 아시아의 여성, 통일을 지향하는 남과 북의 여성들이 어떻게 상호협력하여 가부장제 문화의 지배를 극복할 수 있을까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다.

니다. 따지고 보면 이리저리 얼키고 설킨 혈연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친척들입니다. 그런데 외세와 정 치지도자들의 미숙한 처리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제1적성공으로 규제하고 6.25라는 끔찍한 비극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이런 민족적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되겠다는 굳은 신념이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서로 증오하고 적대관계를 상승시켜가서는 안되겠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가운데 평화롭게 함께 발전하고 번영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생명을 잉태하고 보호하며 양육하는 여성들이 더 열성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모였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정말 짙은 애정을 가지고 우리 문제를 풀어보는 장을 마련합시다. 이런 의미에서 북측에서 오신 자매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모임이 많은 인력과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걸치례의 모임이 아니고 정말 진지한 논의를 거쳐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된 한반도의 평화를 통해 진정한 아시아의 평화를 이룩하는 계기가 될 수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 발 제 : 가부장제 문화와 여성

조 형 (이화여대)

### 1. 가부장제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가부장제란 원래 가족의 우두머리인 가장(家長)이 다른 가족성원들 위에 군림하고 통솔하는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부장제 하에서는 가족안은 물론 가족 밖의 사회에서 남성들 사이에는 위계적 권계가, 그리고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남성의 지배와 여성의 종속이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인식되고 또한 행동의 기준이 된다.

남성 가장(家長)의 사적(私的)이고 절대적인 지배권을 인정한 고전적 가부장제 원리는 봉건적 경제체제와 유교이념에 의해 뒷받침되면서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모두의 삶을 강력하게 지배하였다.

정치, 경제적으로 봉건시대를 훨씬 초월한 오늘 날에는 이러한 고전적 가부장제 원리가 법률과 같은 공식적인 제도에서는 그 모습을 감추었으나, 문화로서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사회 각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삶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의 많은 여성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다. 가부장제 문화는 바로 이러한 남성에 의한 여성지배, 남성에 대한 여성종속을 지속시키는 가치관과 삶의 양식을 말한다.

이 주제발표의 목적은 첫째로, 현대사회의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여성의 사회적 삶은 어떠한 "여성문제"를 내포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둘째로, 평화를 추구하는 아시아의 여성, 통일을 지향하는 남과 북의 여성들이 어떻게 상호협력하여 가부장제 문화의 지배를 극복할 수 있을지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먼저 가부장제 문화가 보편적으로 지니는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로 가부장제 문화는 남성중심적이다.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남성이 기준이 된다는 말이다. 예컨대 “사람”이라고 한 때 남자를 떠올리고, 남자가 하는 일은 “일다운 일”인데 반해, 여자가 하는 일은 일같지 않은 일, 혹은 사랑과 희생의 봉사라는 식의 사고방식이 남성중심적 사고의 단적인 예가 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곧 바로 남성과 여성 간의 존재가치, 행동양식, 그리고 사회적 지위의 차이로 연결된다.

가부장제 문화의 두번째 특징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우월한 존재라는 가치평가에 있다. 생각하고 일하는 능력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남성이 담당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고 “중요한 자리”에는 남성이 있어야 당인하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남성은 가치있는 일과 자리를 독점하고, 반대로 여성은 덜 중요한 일을 하고 중요하지 않은 자리에 놓이게 된다.

그리하여 이자들이 근접하기 어려운 남자들끼리의 세계가 형성되며, 남자들이 끼어들지 않는 여자들의 세계가 분리된다. 이 때 남성세계에는 보다 많은 이득과 지배권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고 결과적으로 승리자와 패배자, 상(上)과 하(下)가 판가름나는 위계적 질서가 정착한다. 여성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넘지 않도록 이자들을 배제하는데 있어서 남성들간에 무언의 협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남성세계이기도 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제 2의 성”의 집합인 여성세계는 남성들이 주도하는 생활공간의 주변에 위치하면서 공적(公的) 활동보다는 사적(私的) 활동의 체험을 공유하는 세계를 이룬다. 따라서 여성들은 쉽게 개별화된다.

세째로 이와 같은 남성세계와 여성세계의 분리, 남성에 의한 여성지배의 구조가 재생산되는 가부장제 문화의 또 다른 변모들이 있다. 여성과 남성간의 차이를 과장하는 “남성다운 남성” “여성다운 여성”의 양분된 모형이 그 하나이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부터 남자는 씩씩하고 적극적이어서 남성세계에서 성공하는 성품과 능력을 지니도록, 여자는 순종적이고 수용적이어서 남성세계에 도전하지 않는 성품과 포용력을 지니도록 분리된다. 이렇게 키워진 남성과 여성은 가부장제 문화에 순응하면서 똑 같은 문화를 전승하는 대행자가 되는

것이다.

여성이 종속되고 억압되는 객관적 현실은 여성다운 성품과 여성이 담당하는 일에 대한 미화로서 은폐된다. 숭고한 모성(母性), 양보와 사랑과 희생의 미덕 등의 미사여구는 여성들로 하여금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오히려 남성지배의 문화를 수용하고 지속시키는 데에 기여하게 만든다. 동시에 남치들로 하여금 하등의 문제의식 없이 여성에 대한 억압적 행동을 일삼을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 지적한 가부장적 문화의 특징들은 시대와 공간을 넘어 보편적인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 범주이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분리된 범주로서 우월한 성(性)과 열등한 성(性), 지배하는 성(性)과 종속되는 성(性)의 관계를 지속해 온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몇가지 더 언급해 둘 필요를 느낀다. 첫째는 “보편적”이라는 말이 타당성이 있다든가 영구불변의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가부장제 문화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부당한 것이며, 또한 언젠가는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둘째로 보편적인 특징이 각 사회에서 현재화되는 구체적인 모습은 그 사회의 경제사회적 조건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다. 세계적 보편성이 있는가 하면 아시아 지의 혹은 전통적 유교권(儒敎圈)의 특수한 보편성이 있겠고, 남한, 북한, 일본에 각기 다른 가부장제 문화의 특수성이 나타날 것이다. 끝으로, 위에 언급한 가부장제 문화의 보편적 특징에서 일방적으로 남성지배와 여성종속을 강조한 점에 대해 거부감이 있을 것이다. 가부장제 문화와 남성의 여성지배에 대한 여성들의 저항운동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가부장제가 지닌 모순적 성격이 구체적인 사회현실에서 여성들의 반발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가부장제 문화의 사회적 현실을 다루면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다.

다음에는, 북한, 일본 혹은 다른 아시아사회에 비해 발표자가 더 익숙한 남한사회에서 남성에 의한 여성지배가 어떠한 형태와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여성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살펴 보면서 가부장제 문화의 사회적 현실을 가늠해 보기로 한다.

## 2. 남한사회의 여성

분단 46여년간 남한 사회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양대 이념으로 하여 많은 변화를 경험해 왔다. 처음 10여년 동안에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1960년대 이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1990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394만원(美貨 5,570弗)이 되는 경제중진국이 되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경제생활, 교육, 문화 각 방면의 생활수준에 향상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들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했으며, 그 변화가 여성들의 삶의 방식과 사회적 지위에도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 이래 뿌리깊이 남아있는 가부장제 문화는 여성들의 지위향상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일부 여성들은 스스로의 권익을 신장하는 여성 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그 실례로 법적 지위, 경제적 지위, 가족 내에서의 지위로 나누어 살펴본다.

### (1) 법적 지위

1948년 제헌헌법 이래 모든 법의 근간이 된 헌법은 인간평등과 기본권 사상에 근거하여 양성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에 의하면 여성이 고용, 임금,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으며, 여성의 근로는 특별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다. 정치적, 공적(公的) 영역에서는 선거권에서 공무담당권에서 남녀가 평등한 기회를 지니도록 보장되고, 혼인과 가족생활에서는 개인의 존엄과 자유 및 양성(兩性)평등이 보장된다. 또한, 헌법은 사회적 약자인 여자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국가가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정대로 사회가 구성된다면 가부장제문화는 이미 불식 되었어야 한다. 그렇다면 가정에서나 사회 여러 영역에서 성차별이 구조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법논리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첫째는 헌법의 정신이 다른 제반 법률에 충실히 담기지 못하거나, 둘째는 평등법의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사실상 이 두가지 모두가 여성의 법적

지위를 불평등하게 하는 요인이 되어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여성들은 모든 법률에서 평등을 기하기 위해 법개정 내지 신규 입법을 통한 제도적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여성의 법적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실제생활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차별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초보적인 과제라는 데에 여성들은 합의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최근들어 더욱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1960년 이전부터 계속되어온 가족법 개정운동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는데 크게 기여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수차례 걸친 가족법 개정이 있었고, 여성에 대한 고용차별 관행을 제기하는 운동, 그 결과 모성(母性) 보호와 고용평등을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 타아입법을 위한 노력과 성취 등은 여성운동의 대표적인 성과 시대가 된다. 현재도 가족법에서 아직도 남은 불평등 조항의 개선, 여성에게 불리한 세법(稅法)의 개정, 사회보장법의 남녀차별규정 및 지방 자치법의 개정, 성폭력 추방을 위한 입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본법인 헌법과 그 하위법들 간의 괴리는 건국 이래 정치집단이 남녀 고용평등법에 대하여 일관되고 통일된 정책의지가 결여되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여성들의 요구에 의해 법을 개정한다거나 제정하는 경우에조차도 정치적, 행정적 이해관계가 앞서고 비일관적인 태도를 보여준 데에서도 정치집단 자체가 가부장적 사고에 물든 남성지배 집단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항하는 여성들이 하나씩 들쭉 법적동등권을 획득하는 데 성공을 보인 것은 스스로 자부할 수 있는 일이다. 이제 앞으로는 법규정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넘어서 법의 집행과정에 대한 문제라도 관심을 넓혀 여성의 법적 지위에 실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 (2) 경제적 지위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은 능력에 따라 재산을 소유할 수 있으며 그 재산은 국가에 의해 보호된다. 또한 누구나 개별적으로 소득활동에 종사할 자유를 갖는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권은 두가지 다른 의미를 내포하는데, 하나는 개인이 소유하는 재산이나 소득이 그 사람 또는 가족의 생존에 기초자원이 된다



는 점이다. 즉 개별가족의 생계는 일차적으로 가족의 책임이며 국가의 책임이 아닌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개인이 소유하는 재산과 소득의 양이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산의 축적이나 직업 활동에서의 성취는 개인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며,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추동력이 된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 혹은 직업 활동은 노동자체의 가치보다는 생존과 사회적 지위라는 맥락에서 이해되는 것이다.

여성의 객관적인 지위를 가늠하는 데에서도, 경제적 척도는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전체 사유재산 가운데 얼마를 여성이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취업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여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살펴 보면, 우선 여성의 취업활동이 꾸준히 증가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1989년 현재 15세이상 전체 여성인구 중 40.4%인 726만명이 경제활동인구로 조사되었다. 이 수치는 남성(75% 안팎)과 비교하면 적지만 가정 밖의 활동이 여성에게 금기사항으로 인식되던 과거에 비하면 커다란 변화이고, 1965년의 37.2%에 비해서도 증가를 보인 것이다. 특히 1980년대에는 기혼여성의 노동참여가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도 큰 변화이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참여의 증대 사실이 곧 여성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의미한다고 보아서는 곤란한 면들이 있다. 왜냐하면, 첫째로 1989년의 취업 여성 713만 가운데 25.5%는 보수를 받지 않는 무급(無給) 가족종사자이며, 최근들어 시간제 고용이 증가되면서 임시고용자의 비율로 12.8%나 된다. 여성 취업자의 1/3 이상이 무보수 노동자내지 고용불안정 노동자라는 사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로, 취업하는 분야에서도 여성이 집중하는 분야와 남성이 집중하는 분야가 구분되는데 여성은 대체로 전통적으로 여성적이라고 인식된 분야(간호사, 전차계통의 부품조립공, 판매원 등)와 영세규모 사업체(1~4인 규모에 전체 여성취업자의 64.6% 집중)에 집중되고, 높은 지위에 승진하는 기회가 제약되고 있다. 이는 분야에 여성이 집중하는 데에는 그럴만한 현실적 이유들이 제시되지만, 이는 직업활동에서 남성세계와 여성세계의 분리를 지속시키는 가부장제 문화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로, 여성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평균임금의 반(半)정도에 불과하다. 1989년 노동부조사에 의하면 여성의 월 평균임금이 336,578원(美貨 약 480弗)으로 남성의 월 평균임금 639,578원(美貨 약 914弗)의 52.7%이다. 직종과 직책에 따라 성별임금격차는 다르지만 여성은 여러가지 합리적, 비합리적 이유로 임금상의 차별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취업하지 않으면 경제력을 가질 수 없고, 경제력이 없으면 부모나 남편에게 생계를 의존해야 하므로 경제적 자립이 여성의 자율성 획득에 기본조건이 된다는 점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에게 취업의 기회가 제한되고,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평등한 처우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한 여성들의 불만은 클 수 밖에 없다. 여성노동자들의 임금투쟁, 그리고 노동자의 모성보호의 실현, 그리고 고용, 승진, 임금에서의 평등권 획득을 위한 여성들의 노력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이라는 일차적 결실을 보게 하였다. 이 법은 노동시장 내의 채용, 임금, 승진, 해고에서 여성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모성보호조항을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제 문화의 지속은 여러 측면에서 발견된다. 특히 소득과 명망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서 여성을 체계적으로 배제하는 데 효과적으로 쓰이는 것이다. 직업인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사회적 관념이 이를 잘 반영한다. 직종의 차이에 관계없이 여성은 일반적으로 "직장의 꽃"으로, "가계의 보조자"로 인식되며 개인의 직업적 성취보다는 가정 일에 충실한 것을 여성의 미덕으로 요구한다. 그리하여 기혼여성이 가정의 임무를 취업에 우선시하도록 만들고, 가족의 필요에 의해서 혹은 가정 일과 병행하는 조건하에서만 취업할 수 있도록 만든다.

어린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취업율이 매우 저조한 또 다른 이유는 탁아 시설이나 기타 가정복지를 위한 시설의 부족을 들 수 있다. 탁아법이 제정된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탁아시설의 태부족으로 자녀는 여성들에게 노동을 중단하거나 시간제 일을 하도록 하며, 계속 노동을 하는 여성들은 실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활동을 여성이 전담하는 관행이 지속되는 현실과 연결된다.

### (3) 가족에서의 지위

남한사회가 겪은 크고 작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족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고, 성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위가 예전같지 않게 변화했을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권위가 실추되었다고 탄식하는 남성들이 생긴 데에서도 변화양상은 쉽게 짐작이 간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정내에서 생산하던 많은 물품을 시장에서 상품으로 구입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이다.

상품시장의 확대로 전에는 집에서 만들어 쓰던 일상용품은 물론, 전에는 쓰지 않던 새로운 상품들을 시장에서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제는 의복은 집에서 바느질해 입지 않는 품목이 되었고, 다양한 가공식품과 식당은 주부들에게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세탁소를 이용하는 빈도도 늘어났다. 새로운 생활용품과 편리한 전자기구들이 가전제품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하게 제공되어 일손을 덜어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족원간의 분업(分業)이나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다른 영역에 비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측면이 보인다. 먼저 가정 내에서의 성별분업이 뚜렷하다. 가족은 모든 가족원의 안식처이자 보금자리이며, 가장 사적(私的)인 영역이자 이자의 영역이라는 것이 가족에 대한 지배적인 관념이다. 이러한 관념은 한편으로는 가족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개별 가족에게 많은 자유가 주어지지만, 동시에 그것은 가족생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가족이 져야 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 내에서의 노동은 여성이 진담하도록 보편화시킴으로서, 가정 내 생산에서 여성은 직접생산자로, 남성은 진유자(專有者)로 만든다.

남성들이 하루 종일 가정 밖에서 보내는 동안, 여성은 가족의 저축과 소비 등 재정을 관리하고 가족원을 돌보면서 자녀를 감독하고 교육하는 일에도 맡게 됨에 따라 전체 기혼여성 중 반(半) 가량이 전업 가정주부가 되었다. 가정 일을 돕 분 이유가 없는 남편이 가장(家長)의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은 당연하고, 이에 따라 가정권(家長權)의 일부가 여성에게로 실질적으로 이양되어 가정 일에 관한 한 여성이 책임자이자 권력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재산이나 가족문제에 관련된 중요한 결정에서는 남성이 최고권위자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부인이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하지 않은 주부보다 가사역할을 담당하는 비율이 적지만, 취업주부의 70% 이상이 청소, 빨래, 장보기, 식사 준비 등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드시 누군가가 해야 하는 일상적 집안 일을 여성이 당연히 맡아야 한다는 관념은 취업주부들에게 이중(二重) 부담을 안겨준다. 따라서 기혼여성의 반수가 되는 취업주부들은 똑같이 일을 마치고도 남편은 안식처로 귀가하는데 반해 또 다른 일터로 귀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의 이중(二重)노동이 점차 문제시되어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아가지만 쉽게 바뀌지 않는 현실이다. 그러나 도시의 젊은 부부사이에서는 가정에서 동등하게 가사를 분담하고 자녀를 함께 기르는 중국 상해(上海)식의 "앞치마두른 남편"이 서서히 늘어날 전망도 보인다.

남아선호(男兒選好)는 또 다른 가부장제 문화의 유산이다. 부계부권(父系父權) 가족이념은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불이익과 결합되어 여성들에게 아들을 선호하게 만들고 있다. 기술발달로 산아제한이 가능하게 되자 출산율이 크게 떨어져 1990년에는 합계 출산율 1.6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져도 아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여전히 0~14세 여아(女兒)와 남아(男兒)의 비율이 100:108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성별 불균형이 장기적으로 가치 올 효과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가정이 사적(私的)인 영역이고 부부 관계나 부모자녀 관계가 친밀한 사적 관계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여성운동에서 가족에 관련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최근 문제화된 것으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문제를 들 수 있다. 조사자료에 의하면 기혼여성의 반수가 남편에게 맞아본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가정 내에서의 폭력이 집안 일이므로 국가와 사회가 외면하는 것은 더 이상 옹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반드시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에게 가해지는 남편의 성폭력도 심각한

문제로 여론화되고 있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은 그 자체가 피해여성에게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 사회적으로 남성의 여성 지배를 유지하는 기제가 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 (4) 분단(分斷)과 가부장제 문화

지금까지 지적한 문제 이외에도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많은 여성문제들이 우리에게 연구와 토론의 관심사가 되어왔다. 그리고 여성들은 스스로의 권익신장을 위해 정부에 요구하고 기업과 투쟁을 벌이고 사회적으로 저항을 시도해왔다. 이러한 일들은 남한(南韓)이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본다. 한 때는 정부에 대한 여성의 비판과 요구가 분단 논리와 연결되어 의심의 대상이 된 적도 있지만, 이제는 남한사회가 적어도 어느 한 개인이나 집단이 독재를 하거나, 정부에 우호적이지 아니라고 하여 권위적으로 탄압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본다.

그러나 여성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서 부딪치는 많은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다. 우선 여성의 이해를 대표하는 정치적 대표권이 제한되어 있다. 입법부(立法府)에 여성 의원(議員)이 소수에 지나지 않은 것도 그 한 예가 되지만, 사회전체의 분위기가 아직도 가부장제 문화의 지배하에 있어서 여성들의 과감한 요구와 행동이 도처에서 저항에 부딪치곤 한다. 남한사회에서 가부장제 문화와 위계질서를 강화해 온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남북 분단에서 비롯된 상황이다.

남북분단(南北分斷)으로 인하여 직접 개인적으로 고통을 당한 1천만 이산가족(離散家族)의 아픔은 물론, 전쟁 이후 40년 가까이 지나는데 동안에 한시도 벗어나지 못한 전쟁의 위협이 한민족(韓民族)의 비극임은 누구나 에통해하는 일이다. 이제 감정적 애환을 접어두고 분단상황과 가부장제 문화의 관계를 논해 보자.

분단으로 인한 남북간의 적대관계는 양쪽사회에 모두 지나친 군사적 부담을 안겨주었다. 이것은 재정적으로는 물론이고 (방위비가 1970년대 이후만 보더라도 정부재정의 30% 이상으로 지속되어 왔다.) 사회적으로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우선 군대나 전쟁이 사회적 중요성을 지니게 될 때 사회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며, 대부분 그 영향은 남녀평등의 실현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즉 가부장제 문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적용한다. 우선 그런 사회는 공격적이고 진취적인 남성상을 우월한 가치로 강조하고 그 반대로 여성은 나약한 보조자로 전락하게 된다. 둘째로 가시적(可視的), 비가시적(非可視的)으로 물리력과 폭력이 묵인되어, 여성은 더욱 약한 존재로 성적(性的)인 존재로 축소되고 있고 또한 국가의 억압적 성격을 정당화하게 된다. 끝으로 군대의 경직되고 엄격한 위계조직이 사회조직의 모형으로 정착되기 쉽다. 이런 위계질서는 가부장제 문화와 친화력을 지니고 상호 강화하는 경향을 지니게 된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건강한 남성들 대부분이 군대경험을 해야하고 퇴직 직업군인이 사회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경우 군사문화의 확산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지난 40년간, 남한사회는 군사문화가 정치, 행정, 경제, 교육, 문화 각 분야에 침투하여 가부장제 문화를 강화하는 데 큰 몫을 한 셈이다. 따라서 가부장제 문화를 극복하여 여성이 남성과 진정한 사회적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도 분단과 전쟁, 그리고 군사문화를 극복하는 일이 필수적 과제가 된다.

### 3. 가부장적 지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남한사회의 여성의 생활과 운동을 중심으로 여성의 객관적 위치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북한이나 일본의 여성들도 가부장제적 경험에 관해서 함께 대화할 수 있을 만큼의 유사성을 지니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체제와 국경을 넘어 여성의 이러한 생활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지역에서 평화와 남녀평등을 구현하는 방법을 논할 때가 왔다. 이번 서울 토론회가 보다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모임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들이 여성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제를 발견하게 되기 바라면서, 토론을 위해 몇가지를 건의(建議)해 본다.

이 제안은 한민족의 통일을 당위로 받아들이면서 남과 북, 그리고 일본

의 여성들이 각기,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자는 것이다.

첫째는, 남과 북 두 정부간의 통일을 위한 회담에 여성대표를 내는 일이다. 이것은 통일과정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이 필수적이라는 의미이며, 이 여성대표는 정부의 대표이자 동시에 여성의 대표이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이제까지 남쪽 여성들이 열심히 해 왔듯이 각 사회에서 가부장제 문화와 남성지배 구조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계속하는 일이다. 가부장제의 극복 없이는 통일이나 어떤 다른 정치적 변화도 자동적으로 남녀평등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의 지위향상은 여성 스스로의 힘으로만이 할 수 있다.

셋째로, 한 세대가 넘는 40여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남북(南北) 간에 형성된 이질성(異質性)을 극복하는데에 여성들이 앞장을 서는 일이다. 마음을 열고 대화를 통해 우리들의 경험과 정서를 교류할 때 동질성(同質性)이 확인되고 차이가 좁혀질 것이다. 통일이 언제 될 것인가의 시기에 상관없이 이러한 노력이 다양하게 전개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여러 여성집단이 서로 만나는 기회를 되도록 많이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네째로, 남과 북 그리고 일본 여성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추진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다. 정신대(挺身隊) 피해여성을 위한 시위가 그 중 한 예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끝으로, 여성들의 교류가 생활에도 서로 보탬이 되는 방법을 찾는 일이다. 예컨대, 명절(名節)을 기하여 서로 간에 귀한 물건을 교환하는 사업도 추진해 볼 만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 여성들이 남성세계의 권력다툼이 아닌 생활의 지혜와 정서와 애정으로 결합할 때, 통일은 여성과 민족을 위해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아시아에 평화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 환영인회에서 할 북측여성대표단

### 단장의 인실문

존경하는 여성대표 여러분!

서울시 각계인사 여러분!

오후에도 그리던 남녘의 여성들과 자리를 같이한 이시각, 지의 심정을 무엇이라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북남간에 대화가 시작된지도 이인 스무해, 그동안 북남의 정치인들과 경제인들도 만나고 학생들과 예술인들 그리고 체육인들도 서로 오가며 상봉의 기쁨을 나누었지만 유독 우리 여성들만이 지금까지 서로 만나고싶어도 만나보지 못한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하고 이렇게 내 나라, 내 땅에서 우리가 만났으니 끊이오르는 걱정을 누를길 없습니다.

저는 상봉의 환희로 가슴부푸는 이 시각 우리들을 동포애의 정으로 따듯이 맞아주고 이치림 화기 에에한 자리

존경하는 여성대표 여러분!

서울시 각계인사 여러분!

를 마련해준 토론회 실행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동포여성들  
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북녘의 여성들이 남녘의 모든 동포들과 여성들  
에게 보내는 뜨거운 인사를 전하는 바입니다.

저는 또한 이국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민족의 넋을 간  
직하고 불타는 애국애족의 마음으로 나라의 통일위업에 직  
극 이바지하고있는 해외동포여성대표들을 일렬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회에 평화에 대한 높은 지향을 안  
고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관한 제1차토론회  
를 싱가포르에 주최하고 이번 제2차회의를 성공시키기 위하  
이 이리모로 애써주신 일본의 지명한 여성활동가 여러분들  
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우리 민족은 일제

식민지통치 36년간보다 10년이나 더 긴 오랜 세월을  
분리의 비극속에서 이루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겪  
으며 살아왔습니다.

더우기는 북남사이에 정치군사적대결이 지속되어 동족이  
적이 되고 과도한 군사적부담을 안은채 우리 거래는 또  
한차례의 전쟁을 겪느냐 마느냐 하는 항시적인 불안에 잠  
거있습니다.

우리 민족모두가 세대와 세대를 이어 겪고있는 분리의  
이 비극은 우리 여성들에게도 《살아 생리빌은 생초목에도  
불붙는다》는 말과 같이 세상에 더없는 리빌의 오욕을 들  
씩워 왔습니다.

수수천년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며 단일민족의 역사를  
민민히 이어온 우리 거래가 이제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욕된 분리의 역사를 더이상 감수할수 있겠습니까.

더우기 분렬의 지속이 민족의 밑살을 가지울 전쟁, 핵 전쟁의 위협을 시시각각으로 몰아오고있는. 이 임혹한 현실을 어느 누가 또한 수수방관할수 있단말입니까.

이제 더는 우리가 뼈를 깎는 분렬의 고통속에 몸부림치고만 있을수 없습니다.

통일은 바로 우리 민족을 살리는 길이며 우리 녀성들이 한많은 불행속에서 빛이나는 길입니다.

우리는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자체의 힘으로 통일 의 날을 앞당겨와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사상과 제도를 가리지 말고 한피줄을 나눈 형제로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것입니다.

서로 사상이 다르다고하여 배척하고 제도가 다르다고하여 적대시할네기를 하어서는 인제가도 우리 민족의 통일을 이룩할수 없습니다.

사상과 제도가 아무리 소중하다 치더라도 민족보다 더 중요할수는 없으며 민족이야말로 사상과 제도 이전의것이고 민족의 운명보다 더 귀중한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세상을 둘러보아도 주의주장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한가장을 이루고 살고있고 서로 다른 사상을 신봉하는 세력들이 민족의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치나가고있는것이 우리 시대의 현실이기늘 우리 민족만이 사상과 제도가 다르다고 서로 반목질시하며 갈라져 산다는것은 수치가 아닐수 없습니다.

우리는 북에 있긴 남에 있긴 해외에 있긴 관계없이 하나의 민족임을 먼저 생각하고 같이 살아갈 길을 함께 모색하여 함께 일어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것이 진실하게 필요할뿐아니라 능히 가능하다고 우리는 믿고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래전에 백범 김구신생의 평양방문과  
가깝게는 문익환목사나 립수강학생의 평양방문을 통하여 그  
리고 《코리아》유일팀선수들에 대한 공동응원과정에서 이실히  
체험하고 확인하였습니다.

이러분! 민족의 단합을 도모하고 통일을 앞당기는 길  
에는 남성이 실 앞자리가 따로 있고 여성이 따라야 할  
뒤자리가 따로있다고 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화목하자면 여성의 옹은 자세와 심실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것처럼 우리 민족이 단합하고 통일을 이루자면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도 응당한 역할을 하여야 하미 오히  
려 남성보다도 더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여성들도 가정에 파묻히거나 생업에만 몰두하지  
말고 민족사적요청에 호응하여 통일의 길에 떨치나시 한몫  
단단히 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 북녘여성들은 통일을 바라는 남녘의 모든 여성들  
과 사상과 리념, 주의주장에 관계없이 아무때나 서로 만나  
고 지혜와 힘을 합쳐 통일성업에 함께 이바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결의에 넘치있습니다.

당민하이 우리는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관한 제2차토론회가 평화보장과 북남여성들의 단합을 도모  
하고 나라의 평화통일을 이바지하도록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지는 끝으로 우리 북녘여성들의 숭고한 통일념원을 담  
아 민족의 단결과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아세아의  
평화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  
여 다같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 <sup>법적으로</sup> 전문 게재는 불허되어 있으니,  
발췌 요약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아세아의 평화와 너싱의 역할》에 관한

제 2 차 토론회에서 할

기 조 보고

해내외여성대표 여러분!

일본여성대표 여러분!

나는 먼저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관한 이번 제 2차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토론회를 마련하기에 모고를 바친 남측실행위원회와 남녘의 여성대표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큰 뜻을 안고 이 자리에 참석한 해외여성대표들과 우리 나라의 통일을 적극 지지성원해주고있는 일본여성대표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통일과 여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국통일은 온 겨레가 일일천주로 갈망하는 지상의 과제입니다.

조국통일이라는 말은 우리 겨레의 가장 큰 아픔을 뜻하는 말이며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소원을 이르는 말입니다.

조국통일이란 본질에 있어서 우리 민족이 본연의 모습대로 하나가 되는 민족단합을 의미하는 것이며 온 민족이 민족으로서 존엄있게 살아갈수 있는 자주권을 확립하고 완전한 독립을 이룩하는 문제입니다.

조국통일에 대한 지향에서는 우리 겨레 모두가 공통할수 있지만 구체적감정에서는 남성들이 통일에 대하는 감정과 우리 여성들이 통일에 대하는 감정이 꼭 같다고 할수 없습니다.

조국통일문제에 대하여 논할 때 남성들은 보통 범상한

말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에도 우리 여성들은 눈물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곤 하는것을 우리는 자주 묵적하곤합니다.

과연 통일이란 무엇이기에 그것을 외우며 우리 여성들은 눈물을 짓는것입니까, 도대체 통일이란 무엇이기에 그것을 위하여 우리 여성들은 자기 몸을 불사르고 목숨도 아낌없이 바치는것입니까.

그것은 통일이 우리 여성들의 운명과 잇닿아있고 조국의 운명과 련결되어있기때문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나라의 분렬로 말미암아 참으로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분렬때문에 우리 나라의 많은 여성들은 부모자식들과 생리별당하고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있으며 분렬이 가져온 전쟁때문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딸들도 잃었습니다.

분렬때문에 여성들은 어마어마한 대결체제하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으며 여성으로서의 권리와 존엄까지 짓밟히고 있습니다.

더우기 우리 여성들은 분렬때문에 전쟁의 항시적인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남편과 자식들의 신상을 걱정하미 인제나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조국의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서는 우리 여성들이 이런 모진 불행과 고통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습니다.

북을 방문한 림수경학생이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인신하면서 《어머니, 하나된 조국에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북메이 웨치던 그 절규가 지금도 귀전에 쟁쟁하게 울려옵니다.

림수경학생의 이 웨침은 그가 사기의 운명이 곧 조국의 통일과 연결되어있음을 절절히 호소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통일이 없으면 조국도 없고 조국이 없으면 우리 여성들의 행복도, 밝은 미래도 생각할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여성들은 나라의 통일을 온몸으로 그리고있고 운명의 전부로 간주하고있습니다.

통일이야말로 조국을 살리고 우리 여성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여성들의 운명과 관련되는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주체는 북과 남, 해외의 7천만저레이며 여기에서 우리 여성들은 절반력량을 차지하고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통일문제해결에서 보조적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통일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주역으로 되고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여성들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량적인 의미에서뿐아니라 통일에 대한 의지와 지향이 누구보다

도 강렬하고 통일위업에 적극 투신해나서고있는 현실로부터 출발하고있는것입니다.

우리 공화국북반부에서는 1946년 7월에 남녀평등권 법령이 발표된후 모든 여성들이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분야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뿐아니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도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나라의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국회) 대의원(국회의원) 687명 가운데서 20%를 차지하는 138명이나 되며 그밖에 여성 과학자, 전문가들은 35%, 여성의사는 44.8%, 여성교원은 56.4%를 차지하고있습니다.

국가는 모성들이 마음놓고 일할수 있도록 전국도시에 3만7천개의 탁아소와 2만3천개의 유치원을 꾸려놓고 이

기서 350여만명의 어린이들을 진적으로 국가적부담으로 먹이고 입히며 키워주고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국가가 베풀어주는 막대한 혜택과 배려를 받으면서 명망있는 정치인, 유능한 경제전문가로, 우수한 학자, 예술인으로, 인민의 사랑을 받는 영웅, 숨은 공로사로 차라나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꽃피우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습니다.

국가는 조국통일을 위한 위업에서도 여성들의 힘을 믿고 그들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있습니다.

지난 8.15에 진행된 조국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때 전국각지에서 선출된 1,000명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인테리 대표들가운데서 여성들이 부러 450이명이나 차지하여 대회를 훌륭히 장식하였습니다.

우리 북반부에는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사업에 헌신한

인사들에게 《조국통일상》을 수여하는 제도가 있고 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싸우다 희생된 애국자들을 애국렬사릉에 안치하는 제도가 있는데 많은 여성들이 영예의 《조국통일상》을 수여받았거나 애국렬사릉에 안치되어 영생하는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여성들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그들의 사회정치적 지위를 높이주며 여성들이 사회정치 활동에 마음놓고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고 그들을 의식화, 조직화할 때 사회적 진보와 번영을 위하여, 조국통일을 위하여 큰 일을 할 수 있으며 위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도 사회적진보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조선에서는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여성운동단체들이 결성되어 활발히 움직이고있으며 애국운동의 내오에는 언제나 여성들이 앞장서 나아가고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민주, 통일에 바친 남조선여성들의 불멸의 위훈은 우리 민족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라고 믿고있습니다.

최근년간 해외동포여성들도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운동에서 중대한 역할을 담당수행하고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8. 15에 진행된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2차 범민족대회에 참가한 해외대표들가운데는 여성들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북남, 해외통일운동단체인 《범민련》에는 많은 해외동포여성들이 참여하고있습니다.

이제 우리 여성들은 낡은 가부장적인 속박의 울타리속에서 사는 인약하고 힘없는 여성들이 아니라 자주성을 시

향하는 현시대의 중심에 뛰어들어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개척해나가는 힘있고 존엄있는 역사발전의 주체로 등장하였습니다.

오늘에 와서 우리 녀성들은 통일을 위한 단순한 잠재력량이 아니라 통일운동을 실질적으로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주체로, 기본력량으로 되고있다고 당당하게 말할수 있습니다.

우리 녀성들의 노력과 투쟁에 의하여 조국통일은 너는 우리 겨레의 념원이나 단순한 미래상으로만 되어있지 않습니다.

조국통일은 오늘 우리 앞에 의미있고 락관할 현실로 다가오고있으며 함께 다같이 공감해마지 않는 통일의 시간표까지 정해져있습니다.

《1995년을 통일의 원년으로 만들자!》 이 구호는 북과 남, 해외가 다같이 웨치고 다같이 실천해나가는 통일

의 리징표입니다.

우리 녀성들은 이뻛게 하나 이 통일의 리징표를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한단계에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중요한 이뻛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겠습니까.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먼저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막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누구도 전쟁을 원치 않았지만 전쟁의 위험은 날을 따라 키가고있습니다.

우리 녀성들의 평화념원에 배치되게 군사적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현대적살륙무기들이 대량반입되고있으며 도발적인 군사인습이 매일같이 벌어지고있습니다.

1976년부터 15년동안이나 매년 3~4개월씩 외세

와 야합하여 대병력을 동원한 가운데 벌리는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가장 큰 화근으로 되고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우리에게 대한 일방적인 《핵사찰》 압력을 공공연히 가해나서면서 그 무슨 《군사적체제》까지 가하겠다고 떠들므로써 사태를 더욱 위험한 전쟁집경으로 끌고가고있습니다.

만일 전쟁을 추구하는 세력들이 계속 이대로 나간다면 우리 민족은 또 한차례의 전쟁, 핵전쟁을 피할수 없게 될 것이며 전선과 후방이 따로 있는 이 전쟁에서 우리의 국토는 황폐화되고 겨레는 멸종되게 될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나라에서는 통일도 무의미하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에게 이와 같은 참혹한 재난을 가지

다주려는 미국에 대하여 투철한 자주적립장에 서서 그 정책을 투시해보아야 합니다.

미국은 결코 《평화의 사도》가 아닙니다.

미국은 남의 나라를 침령하고 지배하는 세력입니다.

미국은 《남침위협》을 억제하기 위하여 남조선에 와있는것처럼 말하고있지만 그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공화국북반부에는 남조선 녀성들과 인민들을 반대하거나 적대시하는 세력이 없으며 북과 남의 인민들사이에는 서로 싸울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 공화국북반부는 시종일관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여러가지 평화발기를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상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습니다.

최근시기에만 하여도 우리측에서는 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군축을 실현하



우리와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군을 철거시키며  
조선반도를 비핵지대화할데 대한 합리적인 제안들을 거듭  
친명하였습니다.

우리는 《핵사찰》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우리 나라에서  
핵위협은 미국이 남조선에 1천여개의 핵무기를 배비해놓고  
우리를 위협하는데서 오고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 미국  
이 핵무기를 완전히 철수한다면 아무때나 핵담보협정에 서  
명하고 핵사찰을 받을 용의가 있다는것을 밝히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평화발기와 제의들은 어느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있으며 부정되고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수 없습니  
다.

평화를 위한 노력에서 우리가 찾은 교훈은 평화란 길  
코 저절로 오지 않으며 구걸하여 얻을수도 없다는 사실입

니다.

평화는 오로지 우리들 스스로의 힘으로 전취하여야 합  
니다.

투쟁으로 얻는 평화야말로 진정한 평화이며 담보있는  
평화입니다.

우리 녀성들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군축을 실현하며,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군을 철  
거시키며 비핵지대화를 실현하는데 다같이 힘을 모으고 뜻  
을 합쳐나가야 할것입니다.

우리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서는 평화적전제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통일방도를 확정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통일방도란 통일문제를 해결하고 통일국가를 세우기 위  
한 방법으로서 이것부터 확정해야 온 민족의 통일운동을  
하나의 목표로 지향시켜 나라의 통일을 앞당길수 있습니다.

통일방도를 찾아내고 진민족적합의를 이루는것은 통일을 위한 필수적공정이며 이차피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분렬된 나라들에서 통일을 실현하는 방도에는 두개 국가가 병존하면서 장차 제도적통일로 나아가자는 방도와 련방형식의 통일국가를 세우고 그 테두리안에서 북과 남의 두 세도가 공존하는 방식으로 민족적통일을 실현하는 길로 나아가자는 방도, 이렇게 두가지 방도가 있을수 있습니다.

제도적통일을 실현하는것은 당장은 현실적인 가능성도 없거니와 그보다도 부정적인 측면들이 매우 많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벌써 10년전에 우리나라의 현실을 깊이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련방국가를 창립하는 방법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가장 합리적인 통일방도를 천명하시였으며 올해 신년사에서 이 련방

제통일을 점차적으로 실현하는 문제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하시면서 매우 신축성있는 입장을 표명하시였습니다.

련방제통일방안의 기본내용을 보면 북과 남에 있는 서로 다른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동수로 련방정부를 구성하며 그밑에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는 지역자치정부를 내오되 감정적으로는 두 지역자치정부에 더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더 높여나가는 련방제통일을 점차적으로 실현할수도 있다는것입니다.

련방국가창립방안은 민족과 제도가운데서 어디까지나 민족을 우선적인 자리에 놓고 전개한 통일방안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통일문제는 그자체가 갈라진 국토와 거레를 하나로 합치는 민족문제이지 결코 제도문제는 아닌것입니다.

여기로부터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는 어디까지나 민족

을 우위에 놓아야하지 제도를 전면에 내세워서는 안됩니다.

원래 민족은 제도이전의것이며 따라서 민족은 제도우에 있고 제도는 민족안에 존재합니다.

민족은 항구적으로 존재하지만 민족안에서 제도는 사회 발전과 더불어 변하게 됩니다.

혹자들은 《민족이질화론》을 제창하면서 마치도 북과 남이 서로 다른 민족으로 되고 민족자체가 이질화된것처럼 말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분렬주의적립장에서 나온 분단론리입니다.

북과 남은 엄연히 민족적공통성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빈함이 없으며 민족적으로서는 의연히 동질적인것입니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제도로 말하면 그것은 46년동안에 형성된것이지만 민족적공통성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화된 뿌리깊은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민족적공통성에 기초하여 민족을 최우선적치위에 놓고 논리를 전개하여야 하며 제도를 앞에 내세우거나 그것을 우위에 놓아서는 안됩니다.

만일 제도를 전면에 내세우면 불가피하게 통일문제를 리념적대결, 사상적대결의 논리에 따라 해결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통일문제를 힘에 의해 해결해야 하는 불행한 결과를 빚어내게 됩니다.

린방국가창립방안의 우월성과 합리성은 그것이 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념원에 맞게 통일문제를 누가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는 원칙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순탄하게 해결하게 하는데 있습니다.

이 방안은 상대방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통일문제를 해결하기때문에 통일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관동하지 못할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남조선에는 현실적으로 연방제 통일방식을 부정하고 제도우선론, 리념우선론에 기초하여 제도통일을 주장하는 논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북과 남에 서로 융합될수 없는 두개의 제도가 존재하고 어느 일방도 자기의 제도를 양보하려 하지 않는 형편에서 한 제도를 청산하고 다른 제도를 거기에 연장하는 방법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어차피 힘의 대결을 피할수 없고 그렇게되면 민족내부에서 재난을 면할수 없게 될것입니다.

통일문제를 먹고 먹히우는 힘의 논리에 따라 해결하려는것은 인제가도 실현될수 없는 공상으로서 이것은 사실상 통일을 하지 않으려는것이나 같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에 대하여 말한다면 사람중심의 철학사

상인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인민대중중심의 독특한 우리 식 사회주의입니다.

우리 식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어있고 국가가 근로인민대중에게 직업과 자녀교육, 치료와 식의주 등 모든것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해주는 인민의 리상사회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누구나 빈부의 격차를 모르고 다같이 고루롭게 먹고 입고 쓰고 살며 무상치료, 무료교육에 세금한푼 내지 않고 모두가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고 걱정없이 행복하게 살고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는 누구의것을 모방했거나 누가 만들어 준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자신이 선택하고 우리 식으로 가꾸며 빛내어나가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인민들은 자신이 선택한 이 제도,

모든 사람이 국가와 사회의 완전한 주인이 되고 모든것의 주인, 자기 운명의 참된 주인으로 되어있는 우리 식 사회주의를 무한히 신뢰하고있으며 끝없이 사랑하고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이처럼 우월한 사회제도에 대하여 누구도 그 어떤 다른 제도를 인정해보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하며 그러한 부질없는 야망만 있다면 우리의 련방제통일방안을 응당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련방제통일방안이 합리적이고 리상적인것이라고 인정하지만 이것을 절대화하거나 우리것만을 고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통일에 유익하고 토의의 기초로 될수 있는것이 라면 그것이 누구의 제안이던 관계없이 허심탄회하게 협의에 응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최근시기 남조선에서도 야당과 재야에서 련방제방식의

통일방안을 거듭 제기하고있는것으로 우리는 알고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련방제방식의 통일방안에는 내용에서 일부 우리와 차이나는 점들도 있지만 이췌든 련방제방식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근본립장에서는 우리와 상통하므로 환영만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방도에 관한 전면적합의를 이룩할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어있으며 시기적으로도 이제는 그러한 환경이 성숙되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올해 신년사에서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는 통일방도에 관한 민족적합의를 이룩하기 위하여 북과 남의 당국과 정당, 단체 대표들의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할것을 제안하시었고 이 정치협상회의 북측준비위원회에서는 올해 8.15에 이 회의를 열것을 재의하는 편지를 남조선당국과 정당, 단체들에 보낸바 있습니다.

그런데 남조선의 재야와 일부 야당들은 여기에 호응하  
았으나 다른 정당들은 부정적립장을 취하였으며 당국은  
《국론분렬》을 위한 대규모군중집회와 같은것이라고 하면서  
기부해나섰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협상회의는 결코 군중집회와 같은  
회의가 아니라 북과 남에서 각각 50명 정도의 대표들이  
린좌하는 작은 규모의 수수하고 소박한 협상을 넘두에 두  
고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구를 고립시키고 누구를 끌어당기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사도 없습니다.

온 민족의 이익과 관련되는 통일문제는 어느 일방을  
고립시키고 타방을 끌어당겨 다수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해  
결할수 없으며 어디까지나 당국과 정당, 단체 대표들의 만  
장일치의 합의원칙에 따라 해결하여야 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북과 남의 우리 녀성들이 조국통일  
방도를 같이 모색하고 확정하려는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할것을 호소합니다.

아울러 나는 우리 녀성들도 합리적인 통일방안을 공동  
으로 연구모색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긴절한 비판을 가하는것이 응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대표 여러분!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의 길에서 우리 녀성들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자면 무엇보다도 통일문제해결의 주인된 자각을  
가지도록 하는 의식화사업을 선행시키는것이 중요한 과제로  
나섭니다.

조국통일은 그 주체인 민족성원들과 함께 우리의 모든  
녀성들이 통일의 주체임을 확실히 깨닫고 통일운동에 적극  
동참해나설 때 비로소 빨리 실현될수 있습니다.

조국통일은 남성들만 할 사업이 아니라 우리 여성들도  
꼭같이 기본동력이 되어 수행해야 할 위업입니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통일운동의 관조자가 아니라 주역이  
되며 통일운동의 번두리가 아니라 중심에 뛰어들어 협소한  
가정의 태두리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높  
은 애국정신을 간직하고 통일을 앞당기는데 심신을 바칠  
의지를 키워야 할것입니다.

조국통일을 위하여서는 또한 우리 여성들이 서로 화해  
하고 단결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통일은 하나가 되는것입니다.

하나가 되는것은 화해하고 단합하는데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화해와 단합은 곧 통일이라고 말하고있습  
니다.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는데서 북과 남, 해외의 우리 녀

성들이 화해하고 단합하면 민족의 절반이 화해하고 단합하  
는것으로 되며 나아가서 온 민족의 화해와 단합도 쉽게  
이룰수 있게 됩니다.

지금 북과 남, 해외에서 통일운동체들이 결성되어 각계  
각층 인민들과 여성들을 결속하고있는것은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데서 매우 좋은 일이며 특히 《범민련》의 발족은  
화해와 단합의 가장 힘있는 구심체의 탄생으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성들은 이리가지 형태의 통일운동단체  
에 망라될뿐아니라 《범민련》의 기치아래 굳게 단결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할것입니다.

조국통일을 위하여서는 여성들을 의식화, 조직화하고 우  
리 여성자체의 통일운동을 끊임없이 확대발전시켜나가는것과  
함께 우리의 애국운동을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등

각계각층의 통일운동과 연대하는 사업을 잘 하는것이 중요  
합니다.

우리의 강점은 우리 녀성들의 애국운동이 다른 사회성  
원들의 지지를 가장 쉽게 받을수 있으며 우리 녀성들의  
애국적인 호소가 다른 사람들의 호응을 가장 적극적으로  
불러일으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녀성들의 통일운동에 자기의 가정부터 합  
류하게 하고 이웃이 합세하게 하며 동과 마을, 직장이 합  
류하게 하고 온 나라, 온 민족이 합세하게 만들어야 할것  
입니다.

조국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 해외 녀성들  
의 자주적인 대화와 접촉을 실현하는데도 우리는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통일문제는 온 민족의 운명, 온 겨레의 리익과 관련되

는 대사인것만큼 우리 녀성들도 마땅히 자유롭게 만나고  
대화를 할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당국이 대화를 독점하고 민간대화를 막아나서는것은 통  
일문제의 기속적성격에도 맞지 않고 대화의 근본목적에도  
이긋나는것입니다.

당국대화와 민간대화는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호상 보  
완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길에서는 당국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종교인은 물론  
우리 녀성들이 해야 할 일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국대화도 하고 민간대화도 하고 정치인, 경  
제인들도 만나고 우리 녀성들도 만나야 합니다.

우리 녀성들이 한 자리에 마주 앉으면 녀성들의 세계  
에서 녀성들만이 할수 있는 말도 나눌수 있고 그것으로써







することが朝鮮人民の民族的利益に合致する」などが盛りこまれた八項目からなる「共同宣言」に調印した。

この三党共同宣言にもとづいて、日朝国交正常化に向けた政府間交渉がはじまり、すでに五回にわたる交渉が行われていますが、交渉は両国人民の期待に反し、思うような進展を見せていません。これは、基本的には日本政府の姿勢が侵略戦争による植民地支配の加害責任を戦後四十三年を経た今日なお果たしていない、謝罪と清算を果たしていないという基本認識を欠落させていることに問題があるといわねばなりません。ですからいつまでも本題とかわりない問題をもちだして進展を遅らせ、またアメリカ政府など他の影響を受けて右往左往し、まったく不誠実な対応をしているのです。

私たちはいま、全国の各自治体での日朝国交正常化促進の決議や女性団体独自の要請行動などをつづけており、政府に対して、三党共同宣言の原則にもとづいて誠意をもって交渉をすすめるよう、さらに一層働きかけを強めていきます。

### 核軍縮と朝鮮半島、そして日本

一九八七年のレーガン・ゴルバチョフ米ソ両首脳によるINF（中距離核戦力）全廃条約にはじまり、マルタ会談、ベルリンの壁の崩壊とつづいた歴史の変動は世界的流れを決定的に変えました。今年七月には米ソはSTART（戦略兵器削減条約）に調印しました。まだ七割の戦略核弾頭が残るのをはじめ、海洋発射巡航ミサイル（SLCM）は現在より多い配備を認めているなど不十分ではありますが、二十世紀後半の世界を規定していた米ソの軍事対決・東西の冷戦構造は終焉し、世界の潮流は軍縮と緊張緩和、対話と協調に向かっていることは明らかです。

とりわけヨーロッパでは、昨年十月、四十一年の分断の歴史に幕をおろした「統一ドイツ誕生」、十一月にパリで開かれた「全欧安保協力会議」（CSCE）は、米・カナダをふくむ欧米三十四カ国の首脳が参加して「欧州の対立と分断の時代は終わった」と冷戦に終止符をうつ「パリ憲章」をうたいあげ、同じ十一月、欧州二十カ国首脳が欧州通常戦力（CFE）条約に調印、今年二月には「ワルシャワ条約機構」が三十六年の歴史に幕を閉じ、解体しました。湾岸戦争をものりこえて欧州の軍縮への流れは変わりません。

たために、軍国主義の被害者の面が強調されてきた時期がありました。しかし、私たち自身、反戦・平和運動にとりくむなかで、「日本の女たちは軍国主義の被害者であったと同時にアジアの人々に対する加害者でもあったのであり、その加害責任を免れることはできないのだ」ということを自覚し、一個の人格として主張し、行動する権利をもっている今日こそ、反戦・平和の運動に女性が先頭にたつて本在の本質を主張し、と決意しています。

いま日本政府は、国際貢献に名を借りて自衛隊の海外派兵をもくろみ、そのための法律としてPKO協力法案を国会に提出、現在、衆議院では激しい議論がたたかわされており、また女性たちを中心に市民グループも連日国会に向けた反対行動を展開しています。

### 在日の人々

現在日本に住む外国人の八〇%、約七〇万人の在日韓国・朝鮮人は強制連行や、土地や仕事を奪われてやむなく日本に職を求めて渡ってきた朝鮮人の子や孫です。

こうした在日韓国・朝鮮人の法的地位や処遇、人権保障における多くの問題がいまだ未解決であり、民族教育の権利も保障されていません。就職差別、入居差別など、実生活の差別、日常生活上の偏見は枚挙にいとまがありません。

日本政府の不当な差別政策と、またこれを容認してきた日本の民衆のなかにある根深い朝鮮人・アジア人蔑視の意識を払拭し、在日韓国・朝鮮人に対する差別や人権侵害をなくすためには、やはり正しい歴史認識を確立し、謝罪と清算を果たす義務があるのだということを徹底させなければならぬと思います。

### 日朝交渉

日本は、一九六五年の日韓条約では、韓国に対して「謝罪」も「反省」も行いませんでしたが、一応国交正常化は果たしました。しかし、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とは、まだ国交正常化さえなされておられません。昨年九月二十八日、自民・社会両党代表団と朝鮮労働党は、関係正常化に向けて「過去日本が三十六年間朝鮮人民に与えた不幸と災難、戦後四十五年間朝鮮人民が受けた損失について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に対し、公式に謝罪を行い、償うべきである」「朝鮮は一つであり、北と南が対話を通じて平和的に統一を達成

こうしたなかにも冷戦構造終結の風は徐々にアジアにも吹いてきています。

ソ連艦隊のカムラン湾からの撤退、同じく太平洋艦隊の削減、米第七艦隊の相互訪問、中ソ国境問題の決着と兵力削減合意、カンボジアと平和合意、そして韓ソ国交回復、南北朝鮮の国連同時加盟をはじめ、より複雑、流動的ながら朝鮮半島情勢もいま大きく動こうとしています。南北高位級会談をはじめ、このソウルセミナーが実現したように、民間でのさまざまな南北交流が実現しています。

先頃、ブッシュ大統領（九月二十七日）、ゴルバチョフ大統領（十月六日）が相次いで戦術核兵器の撤廃・削減案を発表、アジア、わけても朝鮮半島の緊張緩和にとって大きな希望を抱かせました。

そして十月に開催された第四回南北高位級会談においても北の延亨默首相が九項目からなる「朝鮮半島の非核地帯化に関する宣言」を提案、さらに十一月八日、韓国の盧泰愚大統領は「朝鮮半島の非核化と平和構築のための宣言」を発表、いま朝鮮半島の非核地帯化が大きく浮上しています。非核五原則といふ

しかし、同時にまた、十一月一日より大規模な米韓合同軍事演習が展開されています。そして、十一月二十一日、ソウルで開かれていた第二十三回米韓定例安保協議の共同声明発表によれば、九三年から予定されていた在韓米軍の第二段階削減計画が凍結され、同時に三八度線一帯に沿岸戦争で威力を発揮したパトリオットミサイルを配備する方向であると発表しました。さらに、来日中のチェイニー米国防長官は十一月二十二日、在日米軍の削減計画も一時凍結する方向で検討していることを明らかにしました。

核拡散防止条約そのものの不平等性も問題ですが、IAEAによる核査察問題と在韓米軍の戦術核撤去の問題とは別の次元で解決されるべきもの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沿岸戦争のときと同様、アメリカの一方で屈服させる「戦争政策は理不尽であり、許しがたいもの」として

ともあれ、二十世紀のアジアは、植民地支配、貧困、日本軍政に蹂躪され、さらに第二次大戦後においても、朝鮮戦争、ベトナム戦争という歴史的悲劇を体験しました。二十一世紀のアジアは平和な世紀でなければならぬと思います。そしてアジアの平和を語るべきとき、貧困と不平等、健康と環境、人権と民主主義の問題が解決されなければならぬと考えます。

冷戦構造から新しい国際秩序へと模索されるなかでの中東湾岸戦争は世界を揺るがしました。アメリカは米ソ協調時代の国連をたくみに活用し、国連決議を背景にして多国籍軍を構成してイラクを攻撃、武力によって終結させました。イラク、クウェート、多国籍軍の死者は軍人・民間人あわせて十五万人から十八万人にのぼるといわれます。

アメリカは「国防計画」の重点をソ連から欧州、アジアに移す新国防戦略をうちだし、とくに日本に対して役割分担を求めています。それは引きつづき資金協力をすることと日米安保体制の性格をより双務的に変えること、すなわち実質的に米軍の「後方支援」を強化することです。

米軍基地撤去が決まったフィリピンとは逆に、いま日本の米軍基地機能の強化がはかられています。

在日米軍は、海軍機として定期的に寄港する第七艦隊艦載機の爆弾、護衛艦の魚雷、爆雷、対空ミサイルの戦術核、海中、水上艦の中距離核トマホーク、そして沖縄、岩国、三沢の海兵隊にも空軍の戦術核がもちこまれていることがすでに指摘されてきました。

日本には「つくらず、もたず、もちこませず」の非核三原則がありますが、「もちこませず」のための確認作業はまったくされてなく、米軍のなすままになってきました。つい先頃も横須賀には、ミッドウェイにかわって空母インディペンデンスが入港しましたが、明らかに核爆弾を積んでいます。横須賀にはトマホークを装備した護衛艦、原子力潜水艦が寄港をくりかえしています。むしろ日本がアジアでもっとも危険な核基地といっても過言ではありません。

そして、平和憲法の理念をかかげて冷戦後の新国際秩序づくりに貢献すべき日本政府は、逆に湾岸戦争を最大限に利用して自衛隊の海外派兵を実現しようと躍起になっています。すでに機雷除去のための掃海艇派遣を閣議決定、特例政令という超法規的手段で海上自衛隊の掃海艇をペルシャ湾に派遣しました。

もとより、日本の防衛費は年を追うごとに増えつづけ、いまや世界第三位の軍事大国になっています。私たちは、いま何としても自衛隊の海外派兵をやめさせなければ再び取り返しのないことになってしまつと、強い危機感をもって自衛隊の海外派兵反対、PKO法案反対で力いっぱいたたかっています。



(제 2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 토론회를 마치며)

남측과 일본측 대표단은 30일 오전까지로 예정된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 토론회 일정을 마치며, 이번 토론회의 성과와 양측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1. 우리는 동경에서 열린 제 1차 토론회에서 합의한대로 분단 46년만에 처음으로 남쪽 땅에서 남·북 및 일본여성대표들이 모이는 민간차원의 남·북 여성 교류를 성사시킨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2. 우리는 이번 서울 토론회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해준 일본여성들이 한국땅에서 처음으로 일제의 한반도에 대한 36년의 강압적 통치와 민족적 억압을 진심으로 사죄하고, 오늘날 남·북 분단의 책임이 일본에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한반도 통일을 위해 남·북여성들과의 공동연대를 천명한 것은 양국간 민족문제해결을 위한 큰 진전임을 확인한다.

3. 우리는 북측 대표단의 조기귀환으로 토론회 일정이 차질을 빚은 것은 유감스러우나 북측 대표들이 떠나기에 앞서 남·북 및 일본측 3자가 내년중으로 제 3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를 평양에서 개최할 것을 합의하였고, 그 구체적 일정 및 내용은 앞으로 남·북 및 일본측과 계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이번 토론회가 여성들의 주도하에 순수히 민간차원에서 치뤄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46년의 긴 세월을 걸쳐 서로 다른 양체제 속에서 만들어진 상호간의 많은 차이와 단절에도 불구하고 이번 토론회에서 확인한 뜨거운 민족애와 자매애를 모아 민족통일과 아세아의 평화를 위해 남·북 및 일본여성들이 굳게 연대해 나갈 것임을 결의하였다.

## 북측의 출발 기자회견시 발표된 성명서

일 시 : 1991. 11. 29. 오전 9시 30분

발표자 : 정명순(북측 대변인)

서울시민 여러분

남녘의 2천만 여성 여러분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제 2차 서울 토론회에 참석한 우리 대표단은 이제 곧 출발합니다. 출발에 앞서 우리는 혈육의 정으로 따뜻히 맞이해준 남녘동포에 뜨거운 감사를 표하며, 친절히 돌보아준 남측 실행위원회 대표 세 분과 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토론회에 관심을 가져준 국내외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제 2차 서울토론회가 온 겨레의 커다란 관심과 기쁨 속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여성들이 단합하여 통일의 첫 물꼬를 튼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 곳에서 우리 대표단에게 표시해 준 동포애 넘친 환영에 속에서 따뜻한 혈육의 정이 세차게 흐름을 느꼈으며, 가슴을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는 가운데 북·남 여성의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토론회에서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자는 공동투쟁의 목소리를 다짐하였으며, 북·남 여성의 현실정 아래서 민족 공동의 통일을 위한 활성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토론회에서 통일을 위한 연방제 방안에 대해 유익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으며,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토론회를 통해 통일의 큰 걸음을 내딛었으며, 통일의 넓은 길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장벽은 허물어지게 마련입니다. 이번 토론회가 폭넓은 대화와 접촉으로 계속 발전한다면, 분단의 장벽은 허물어질 것입니다. 우리 북·남 여성은 제 2차 ‘서울 토론회의 성과를 귀중히 확대발전시켜, 1995년을 통일 원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바지해야겠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남조선 당국이 토론회의 참가를 허용하고도 우리 활동을 여러모로 방해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토론회 자체가 민족의 사활적 운

명과 관련된 의미있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당국자는 정치선전이라고 생트집을 잡고 비방하고 나섰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요구하는 것을 정치선전으로 비방한다면, 이 토론회의 참가를 왜 허용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남조선 당국자는 신변안전을 구실로 실무접촉에서 합의한 이대방문을 일방적으로 취소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커다란 혼란을 야기하고 활동에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그들은 문익환 목사, 임수경 학생, 문규현 신부, 유인호 선생 등 방북인사에 대한 방문이라는 동포애적 요구를 합의사항의 위반이라고 거절하였으며, 위문품 전달도 거절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민간급의 자주적 교류를 남조선 당국이 주저하고 겁내며 통일을 바라지 않음을 웅변적으로 실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남조선 당국의 처사에 분격하며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손님을 초청하고 비방·간섭하는 것은 사죄해야 하며, 방북인사에 대한 무조건 석방을 우리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우리는 신변이 위협되고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하는 속에서 서울에 체류한다해서 더 할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손님으로 있을 필요가 없으며 남쪽에 부담을 줄 수가 없으므로 오늘 평양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가면 제 3차 평양 토론회 준비를 실속있게 다그쳐 평양에서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토론회가 성대히 개최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남녘 동포들의 뜨거운 혈육의 정을 안고 떠납니다. 우리 대표단은 평양에 가면 북반부 형제들에게 보내는 서울시민들과 모든 남녘여성들의 동포들의 뜨거운 인사를 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위 전문은 기록자가 요약하여 정리한 것으로 시간관계상 문자 그대로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주최측과 일본여성대표단은 29일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함께 모여 이번 토론회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91-07)

#### ▣ 토론에 대한 평가

1. 짧은 시간내에 토론회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보면, 토론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남·북여성들은 양체제에 존재하는 많은 차이점과 깊은 골을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열려진 마음으로 시종일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자세로 진지하게 토론하였다.

2. 북측여성대표들은 북측여성들의 생활 속에서 실현해 나가는 구체적 활동을 제시하지는 못했으나, 한결같이 남·북간에 논의되는 통일정책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이 주목되었다.

3. 이에 비해 남측 여성참가자들은 통일을 향해 현장에서 구체적인 일상 활동을 벌이고는 있으나, 통일에 대한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함을 실감하면서 앞으로 통일 문제를 거시적 안목에서 심도있게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4. 토론에 임하는 여성참가자들의 태도는 매우 성숙해 있다고 평가되었다. 토론도중 반대입장이 표명될 때는 간혹 청중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있었지만, 극히 첨예하고 미묘한 토론주제에 대해서도 3백여명의 참가자들은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를 견지하며 경청하고 수준높게 질문함으로써 토론회는 매우 깊이있게 진행되었다.

#### ▣ 재정에 대한 평가

당초 예상모금액은 7천만원이었으나 7천2백만원이 걸쳐 재정문제는 무난히 해결될 듯하다. 만약 경비가 조금이라도 남으면, 남·북 교류를 진전시키기 위한 남북여성교류기금으로 사용될 것이다.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 토론회

남·북측, 일본측 대표단 일행 소개

남측 준비위원회

□ 공 동 대 표

이우정 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회장  
이효재 현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장  
윤청옥 현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 영 집 위 원

공덕귀 윤보선 전대통령 영부인  
김옥라 전 세계감리교여성선교회 회장  
김재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위원장  
김현자 민정당 전 국회의원  
박순금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회장  
박영숙 민주당 국회의원  
이태영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정의숙 이화여자대학교 재단 이사장  
조아라 전 광주YWCA회장  
조화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조국통일위원회위원장

□ 집 행 위 원

이미경 : 집행위원장  
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부회장  
김윤옥 : 토론진행위원장  
“평화와 여성” 토론자  
현 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 원장  
한명숙 : 홍보위원장  
현 한국여성민우회 회장  
안상님 : 의진위원장  
현 아세아기독교여성교육원 원장  
윤영애 : 재정위원장  
현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강성혜 : 문화위원장  
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여성부장



북측 대표단 일행

대표

- 러연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 김선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영접부 부부장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
- 정명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참사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
- 홍선옥
- 최옥희

참관인

- |     |     |     |     |     |
|-----|-----|-----|-----|-----|
| 리연화 | 정연희 | 서금선 | 송선영 | 강영수 |
| 김남수 | 최영화 | 리춘경 | 송남수 | 강덕순 |

일본측 대표단 일행

대표

- 三木 睦子(미키 무즈코)  
1917년 7월 31일생  
1968년 11월 - 아시아부인우호회 회장  
1976년 7월 UN부인회 회장
- 清水 澄子(시미즈 스미코)  
1928년 3월 1일생  
1967년 - 83년 일본부인회의 중앙본부 사무국장  
1983년 - 현재 일본부인회의 중앙본부 외장  
1989년 - 현재 참의원 의원

- 渡邊 峯(와다나베 미네)  
1930년 1월 14일생  
1982년 - 1988년 일본YWCA 회장  
현재 일본YWCA이사, NCC이사

참관인

- 金 貞女  
1931년 5월 9일생  
1990년 7월 - 현재 재일대한기독교부인회 전국연합회 회장

- 朴 善喜  
1926년 9월 6일생  
현재 재일대한기독교부인회 전국연합회 부의장

- 山口 都(야마구찌 미야코)  
1933년 7월 12일생  
1958년 - 72년 전체신노동조합중앙본부 근무  
1988년 - 현재 일본부인회의 중앙본부 부의장

津和慶子(쯔와 게이코)

1945년 1월 2일생

1972년 - 일본부인회의 「부인신문」 편집부

1983년 - 1990년 일본부인회의 중앙본부 사무국장

1990년 일본부인회의 중앙본부 부의장

小川 几多子(오가와 루미코)

1946년 3월 23일생

1973년 일본부인회의 중앙상임위원

1983년 일본부인회의 중앙본부 사무국 차장

1990년 일본부인회의 중앙본부 사무국장

廣瀬 礼子(히로세 레이코)

1931년 3월 16일생

1954년 요코하마시 요시타 중학교 교사

1970년 - 1991년 3월 요코하마시 의회 의원

高橋 美穂子(다카하시 미호코)

1963년 2월 10일생

1987년 1월 일본부인회의 중앙본부 「부인신문」 편집부

石井 智恵美(이시이 치에미)

1960년 9월 10일생

1983년 루터 신학대학 졸

1984년 - 87년 로-시야 대학 대학원

1987년 4월 - 88년 3월 연세대학 유학

1988년 9월 - 91년 2월 이화여자대학 유학

日本と南北朝鮮、真の和解を求めて  
'93「アジアの平和と女性の役割」大阪集会

